

MZ세대의 통일의식과 한반도 ‘두 국가론’의 암묵적 지지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비판

이봉석 (감리교신학대학교 겸임교수)

I. 들어가는 말

II. MZ세대의 가치 지향적 초-개인주의와 보수적 경향성과 통일의식

1. MZ세대의 정체성과 공통의 사회적 경험
2. 경제적 이익으로 접근하는 MZ세대의 통일관

III. 배품과 포용으로 점검해야 할 젊은 세대 의식과 한반도 ‘두 국가론’

1. MZ세대에게 불공정으로서 통일
2. 배품과 포용으로 점검하는 한반도 ‘두 국가론’

IV. 나가는 말

DOI: <http://dx.doi.org/10.21050/CSE.2024.59.10>

• ABSTRACT •

Christian ethical criticism of the MZ generation's sense of
Reunification and of their implicit support of the Korean Peninsula's
“two-state theory“

Lecturer, Lee. Bong Seok (Methodist Theological University)

This paper primarily focuses on the nuclearization phenomenon reflected in the MZ generation's Reunification consciousness and critically analyzes the consciousness of the younger generation, which prioritizes solving the life problems of the 'precariat', a group that is more unstable and crisis-ridden than the Reunification discourse. Furthermore, it criticizes the MZ generation's view of Reunification, which implicitly supports the 'two-state theory' on the Korean Peninsula, a view that has recently been spreading.

In a meritocratic society, it is understandable that the younger generation exhibits an indifferent and self-centered attitude towards others and distrusts ideological communities such as the nation and ethnicity. However, this study aims to reveal that the younger generation's optimistic expectation of the 'two-state theory' on the Korean Peninsula, based on meritocracy, may in fact increase the possibility of conflict and destruction of living spaces due to the expansion of hatred and a sense of superiority between the two states.

Key words: Korea Union, MZ Generation, peaceful coexistence, Reunification consciousness, Reunification Discourse

I. 들어가는 말

MZ세대의 통일 의식은 한반도 '두 국가론'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어쩌면 한국 사회가 너무도 자연스럽게 핵-개인화 사회로 이행한 결과 '두 한국'으로 공존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현실적이라 생각한 듯하다. 작가 송길영은 '새로운 세대의 개인들은 국가가 아니라 자기만의 세계관을 선택해서 살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지금까지 굳게 믿었던 국가의 토대가 흔들리는 경험이 세계관에 균열을 내면서 국가가 개인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한 것이다. 게다가 글로벌 환경에서 자란 젊은 세대는 국경의 문화적 경계가 희미하다. 국가주의보다 개인주의적 속성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세계 구축에 온 힘을 기울인다.¹⁾ 사실 젊은 세대에게 각자도생 차원의 직업을 구하는 일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면서 통일, 민족과 국가와 같은 사회적 담론은 관심을 끌지 못할 뿐 아니라 북한 사회에 대한 인식마저도 부정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결과적으로 현재 젊은 세대의 의식 속에 '두 한국'의 공존이 고정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의 관점에서 보면 '나' 밖의 '타자(국가, 민족, 사회, 교회 등)'로서 공동체를 신뢰할 수 없다. 어쩌면 한국 사회라는 공동체는 이들에게 안정된 구조라기보다 내재화된 불안정이다. 젊은 세대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는 바이다. 그러나 '최소 국가'를 지향하는 신자유주의 속의 개인이 사회 구조적 문제 앞에서 얼마나 불안정하고, 언제든지 위기 속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자 조형

1) 송길영, 『시대에보: 핵개인의 시대』 (파주: 교보문고, 2023), 51. 송길영은 파키스탄 남편, 베트남 신부 등 실질적 국제결혼을 소개하며 '한민족 개념이 100년 전 신조어였고, 만약 '민족 단위의 자립만 주장하면 타국에서 온 이민자를 배려하기 어렵다. 따라서 마음속의 경계를 깨고 우리의 품을 넓혀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문화의 유입은 민족 개념이 삶의 자리에서 그 의미를 많이 잃어가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근에 의하면 ‘프레카리아트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는 유럽만이 아니라 신 자유주의화가 진전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어디서나 찾아볼 수 있다.’²⁾ 따라서 안전한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개인의 안녕에도 크게 도움이 된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 윤리의 사명은 ‘청년 세대’에게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본주의의 계급모순과 국제관계가 낳은 민족모순을 넘어서는 일을 알리는 것이라 본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의 한국 사회에서 청년들의 통일 의식을 진단하고 통일이 주는 가능성에 대해 살펴볼 것이다. 다음으로 ‘남북의 두 한국’으로 남는 것이 불러온 위기와 대처에 대해 살펴보고 하겠다.

II. MZ세대의 지향성 기반의 초-개인주의와 보수적 경향성과 통일 의식

1. MZ세대의 정체성과 공통의 사회적 경험

MZ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이 한국 사회의 정치 지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통일과 관련하여서도 2030세대의 일반적 의식은 선명한 정체성을 지향하는 개인주의적 특성을 보인다. ‘지향성 기반 개인주의’란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전통적이며 역사적인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움을 말한다. 가치 지향의 개인주의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하여 집단성이 전제된 통일을 이루어야 한다는 강한 이념적 정체성을 불편해한다. 이른바 MZ세대라 불리는 젊은이들이 자기 일과 자유를 이념적이며 국가적인 사건보다 더 중요시한다. 이러한 MZ세대의 특성

2) 조형근, 『키워드 읽은 불평등 사회』 (파주: 소동, 2023), 27. 프레카리아트는 프리케 어리어스precarious에서 앞부분 preca-를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에서 뒷부분-riat를 가져와 합친 단어이다. 그 뜻은 불안정한 노동자로 번역할 수 있고, 주로 직업적 안정성이 전혀 없는 삶이 불안정한 사람들의 계급으로 풀이할 수 있다.

으로서 '무소속 공동체'라는 젊은 층의 지향성이 향후 미래 한국 사회와 교회 그리고 통일 논의에도 그대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된다.

MZ세대의 가치 지향적 초·개인주의 정체성에 대해 젊은 층 모두가 가치 지향적 판단을 하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연령집단(age group)으로 세대를 구분하였던 코호트 법을 따라 MZ세대를 특정하겠다. 코호트 세대 구분법은 연령을 집단으로 묶는다. '세대를 동일한 역사·문화권에서 비슷한 시기에 출생한 사람들'로 구분하는 것이 공통의 경험과 공감에 기반 한 사회적 행위를 반영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 적당한 세대 구분법이 될 것이다.³⁾ 사실 2030 젊은이들은 또래 젊은이들과 경험을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공유하며, 이러한 경험을 서로 확인하며 유사한 사고방식과 행위 양식으로 모방하며 자신들만의 사회적 부족(tribe)을 형성한다. 코호트 법에 따라 MZ세대를 구분하면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코호트 법에 따른 세대 구분⁴⁾

분류	기성세대		MZ세대	
	베이비붐세대	X세대	M(밀레니엄)세대	Z세대
출생연도	1955-1964년	1965-1979년	1980-1995년	1996년 이후

윤리교육 교수 오기성은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에서 MZ세대의 특성을 파악한 후 이들의 특성이 통일 교육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MZ세대가 남북한의 통일, 평화 그리고 공존공영을 위한

3)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 인구학』 24(2001), 47-48. 사회학자 박재홍에 의하면 세대의 개념은 독특한 역사적 경험과 생의 주기와 연관 있는 연령 그리고 특정한 관찰 시점을 고려해야 한다. 박재홍의 세대 결정 방법론을 따라 본 연구는 'MZ세대'를 구분하였다.

4) 오기성,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23(2022), 81.(78-101)

노력의 주체가 될 것이고, 미래에 중요한 의미와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오기성은 대부분의 국민들이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그것은 한국 사회 구성원들이 통일보다 ‘두 한국’을 유지하는 평화공존에 더 우선성을 두고 있음을 의미한다.⁵⁾

최근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한국갤럽에 의뢰한 ‘2023 통일의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 통일의식조사’ 역시 MZ세대의 가치 지향의 초·개인주의적 특성이 나타났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3년 조사에서 통일에 대한 견해와 관련하여 전 세대에 걸쳐 ‘현재대로가 좋다’는 응답과 ‘통일에 대한 관심이 별로 없다’는 응답의 비중이 2007년 조사를 시작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고 있다. MZ세대(1985~2004년생)와 관련하여 30.6%가 ‘통일이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M세대(30대, 1985-1996)의 통일의 필요성 응답률은 최근 3년에 비교하면(2020년 35.4%, 2021년 31.9%, 2022년 32.3%) 2023년 현재 30.9%로 가장 낮다.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 관심이 하락하는 추세를 보인다. 북한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북한이 한국의 협력 대상이라는 인식은 역대 최저이며, 반대로 경제 대상이고 적대 대상이라는 인식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⁶⁾ 남한이 북한보다 우월하다는 인식이 통일의 필요성에 무관심으로 응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30 통일의식조사’에서 드러난 MZ세대의 반응을 세 가지 윤리적 특성으로 규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규범적이다, 둘째 전략적이고, 셋째 비참함이다.

규범적 태도와 관련하여, 의식조사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어떤 한 종족

5) 위의 글, 99.

6) <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143110> 접속일 2023.12.14. 12시

적 혹은 종교적 집단이나 어떤 하나의 정치제도에 대해 우월적 지위를 보장해 주는 권리는 어디에도 없다. 그럼에도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가 북쪽의 사람들에 대해 보이는 태도는 지극히 체제나 경제적 측면의 우월주의적인 모습이다. '현재대로가 좋다'거나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다' 그리고 '북한은 협력의 대상일 수 없으며 경계 대상이고 적대 대상이다'라는 인식이 높게 드러난 것은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도덕적 우월의식이다. 여기에 더하여 북한 사회에 대한 인상이 더럽고, 가난하며, 비합리적인 것으로 굳어졌을 때 부정적으로 강화된 의식은 차별의 정당함으로 흐른다. 결과적으로 도덕적 우월성이 강한 상태에서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은 젊은 세대에게 너무 약한 소리이다.

전략적인 태도와 관련해서, 한국 사회가 북한 사회를 대응하는 반응은 전략적 의도를 내포하고 있다. 북한 사회를 남한 사회와 동등한 지위에서 보기보다 열등하게 평가함으로써 더 많은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직관이 내재하여 있다. 역사적이며 이념에 바탕을 둔 통일교육과 체제 우월적 선전을 하는 것도 권리와 이익의 보장을 위해 유리한 지점을 선점하기 위함이다. 사실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포함함으로써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북한은 반국가단체이다. 그리고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는 통일한국이 미래에 어떤 제도로 질서를 삼을 것인지를 밝혔다.

헌법 제4조에 의하면 남한사회가 북한 사회를 흡수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통일한국을 구상함에 문제는 두 개의 한국이 1991년 9월 18일 유엔에 가입한 것에서부터일 것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유엔 가입은 국가만이 할 수 있다. 따라서 유엔 동시 가입은 국제관계 속에서는 두 개의 한국이

존재함을 의미한다.)⁷⁾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헌법, 국가보안법, 남북관계 발전법 등을 통해 북한 사회를 반국가단체로 규정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노동당 규약, 연방제 통일방안 그리고 ‘남조선 괴뢰론’으로 대한민국의 주권을 부정한다. 남한과 북한 모두가 상호 불신의 헌법 구조를 짜놓은 것은 더 많은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전략이라 할 수 있다.

비참함과 관련해서, 한국 사회의 젊은이들이 북한 사회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비참함과 비-인도주의적 현실이다. 특정 지역의 길거리 혹은 미디어를 통해 만나는 탈북 이주민들은 낯선 타자이다. 탈북 이주민이 남한사회에서 정착하지 못하고 주변인이 되는 것이 비참함과 인도주의적 자비심을 갖게 하는데, 한국 사회 젊은이들은 이러한 북한 사회가 구조적으로 낳은 비참함을 혐오와 배제 감정으로 수용한다. 한국 사회 젊은이들이 애절한 마음이나 공황히 여기는 마음을 먹기도 전에 북한 사회와 연루되기를 거부한 것으로 감정이 유도된 것이다.⁸⁾

동일한 조건이라 할 수 없으나 1948년 건국부터 현재까지 국지전이 지속된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 사이의 갈등과 국가 폭력의 연속적 문제는 한반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주디스 버틀러(Judith Butler)는 두 민족 사이의 갈등과 원수 맺기를 풀기 위해 박탈과 축출의 메커니즘에 주목한다. 축출의 시작과 영원한 전쟁, 그것은 1948년 이스라엘 국가가 팔레스타인 지역에 세워질 때 팔레스타인 사람을 추방하면서

7) 배기찬, “코리아 두 국가론과 통일문제,” 『기독교사상』 784(2024), 15. 배기찬(평화문명원 원장)은 ‘두 국가론’을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기회로 보고 있다. 사실 이전에 두 개의 한국은 남이 북을 혹은 북이 남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남북 모두에게 ‘두 국가론’이 대세가 되고 있다. 남과 북이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고, 자유롭게 어울릴 수 있는 공동의 규칙을 마련하면 평화와 통일의 기회가 더 많아 질 것으로 기대한다.

8) Judith Butler,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 양효실 역,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서울: 시대의창, 2016), 390.

빛어진 문제이다. 다시 말해 줄지에 난민이 된 팔레스타인 사람에게 ‘귀환권’과 ‘난민권’을 주어야 했다. 우파 이스라엘인들은 이러한 주장에 반대한다. 그 이유로 이스라엘이 인구통계학적 우위의 지위를 상실할 것이고, 이민족주의가 그 뒤를 이을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이다. 우파 이스라엘인들의 반대 논리는 자기 모순적이다. 이스라엘 민족 자신이 ‘난민권’과 ‘귀환법’에 의해 1948년 이스라엘 국가의 정초를 세웠다. 이스라엘 사람 자신들이 유럽에서 추방되어 성소를 찾으려는, 이른바 ‘난민권’을 원칙으로 국가를 세웠음에도 동일한 원칙을 팔레스타인 사람에게에는 제공하지 않고 배제했다.⁹⁾ 자신들의 땅으로 돌아가려는 팔레스타인 난민에게 권리를 인정하지 않고 축출과 분산으로 대응하고 있다.

어떻게 차별 없고 평등해야 할 ‘난민의 권리’가 배타적이고 독점적으로 적용된 것일까? 주디스 버틀러는 이스라엘 국가의 존재론적 모순이 종교 담론에서 세속적 담론으로의 파생(derivation)에 있다고 설명한다. 다시 말해 버틀러가 윤리적 측면에서 비판하는 우파 이스라엘 사람들의 타자와 관계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나 자신’은 첫째 도덕적 우위를 점한 규범적이고, 둘째 전략적이며, 셋째 비참한 이민족주의에 속해서는 안 된다. 타자와의 관계가 식민지적 관계로 설정되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은 혐오와 증오의 대상으로 만들어졌다. 함께 사는 것이 허락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버틀러는 팔레스타인을 괴물로 만드는 이스라엘 당국에 대해 그들과 대화할 것을 요구한다. 대화하는 것이 영원한 갈등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결과적으로 MZ세대의 통일의식은 단순하고 순진한 가치 지향의 초개민주주의 정체성의 발로로만 볼 수 없다. MZ세대의 통일의식 속에 이미 희생이나 손해가 없는 개인적 안위에 근거한 통일관이 내재하여 있다.

9) 위의 책, 388.

MZ세대의 통일관에 요청되는 것은 다르게 존재할 수 있는 타자에 대한 수용적 태도이다.

2. 경제적 이익으로 접근하는 MZ세대의 통일관

통일은 한국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추구해야 할 당위적 측면이 있었다. 보수이든 진보이든 통일 대박론,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남북 신경제이론 등 국가적 목표로서 각각의 통일론들의 저변에는 민족 공동체의 회복이 내포되어 있다. 이러한 정치경제학의 이념 위에 세워진 통일론이 젊은 세대의 일상에서 지지를 잃은 상황이다. 한 민족임을 강조하는 당위적 통일론에 대한 의식 또한 많이 약해지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에서 드러난 국가주의와 젊은 세대의 개인주의의 충돌 현상이다. MZ세대는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회를 정치적 이유나 대의명분 때문에 포기하는 것을 부당하며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국가주의적 관점에서 남북 화해 분위기 조성 및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였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기회에 대한 박탈로서 공정한 경쟁에서 배제되는 것에 대한 피해 의식을 서로 공감하고 있다. 젊은 세대에게 ‘배제’는 그 어떤 이념보다 우선하는 정의의 판단 기준이다. 다음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팀 논란의 사회적 담론을 연구한 보고이다.

“... 국민과의 공감대 형성, 그리고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공정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신념, 이것이 젊은이들의 촛불에 불을 켜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그러나 젊은이들의 눈엔 지금 올림픽을 꿈꾸며 3년을 기다린 선수들이 기득권층에 의해 좌절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신의 모습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다. ... 이민지 선수가 선수촌에서 쫓겨나듯 나오고, 세라 머리 감독의

정부의 통보가 충격적이었다는 표현까지 언론에 공개되며 정부의 단일팀 구성 노력은 순식간에 국가의 국민에 대한 '갑질'로 변색되었고 문재인 정부의 주요 지지층 2030세대는 결국 등을 돌리고 말았다"¹⁰⁾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 구성이 사회에 던진 담론은 젊은 세대의 국가와 민족 그리고 개인에 대한 우선순위의 변화이다. 다시 말해 MZ세대에게 통일이 줄 수 있는 편익을 이해시키지 못하면 통일 논의는 관심과 지지를 받을 수 없다.

2021년 작가 김지수는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는 다소 도발적인 내용의 글을 발표했다. 김지수는 통일부 기획실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목표로 러시아, 중국, 몽골, 한국이 함께하는 GTI(Great Tuman Initiative) 광역두만강개발사업에 참여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지수는 '한반도를 기회의 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꿈꾸게 하였다'고 말한다. 또한 기회의 땅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현재의 통일관에 대한 전격적인 수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다시 말해 헌법 제3조와 4조에 한반도의 통일이 명시되어 있지만 개인의 행복이라는 출발점에서 보면 너무도 두루뭉술한 통일이다. 국가가 주도하는 이념적 통일 논의는 우리의 삶에는 잘 다가오지도 않거니와 먼 나라 이야기라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와 이데올로기가 아닌 개인의 행복이라는 출발점에 통일을 다시 구상할 것을 말한다.¹¹⁾ 김지수의 주장이 MZ세대가 통일에 대해 그나마 동의할 수 있는 문제의식이라 할 수 있다. 한마디로 젊은 세대에게 이념적 통일보다 현실적이며 실제적인 기회로서의 통일이 중요하다.

김지수에 따르면 통일이 가져올 유익이 넘쳐난다. 첫째로 남북 통합의

10) 임승엽 최영진 임영삼,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대한 사회학적 담론,"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31(2018), 74.

11) 김지수,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과주: 교보문고, 2021), 16-17.

강력한 시너지 효과로 소득이 상승하여 세계경제 2위를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¹²⁾ 둘째로 8,000만 인구는 내수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해 줄 것이다. 셋째로 영토의 확장을 통해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다. 또한 동북삼성, 유라시아 황동해, 환서해로 나아갈 수 있는 물류의 교두보를 확보할 수 있어 하늘과 육지, 그리고 바다의 길이 열릴 것이다. 북한-한국-러시아-중국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가 건설되면 북한경제뿐 아니라 동아시아 시장의 성장과 번영에 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¹³⁾ 넷째로 북한의 약 7,000조로 추정되는 지하자원을 남과 북이 함께 발굴하고 개발하는 것만으로도 자원 강국 자원 부국이 될 수 있다.¹⁴⁾ 다섯째로 2015년 통일부 발표 보고서에 따르면 통합된 한반도 경제에서 약 3,000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날 것이다.¹⁵⁾

종합적으로 김지수에 의하면 언론들은 비용 구조에서만 바라본 한반도 통일을 부정적 이미지를 씌워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따져보면 남과 북이 서로 우호 협력하는 두 국가 관계 속에서 편익과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이 더 크다.

김지수의 말과 같이 19만 3,960명을 수용하는 평양의 능라도 5·1경기장에서 방탄소년단(BTS)의 공연을 한다면, 철도를 타고 평양에 가서 대동강 변 맥줏집에서 대동강 맥주를 마시고 싶다는 2030의 한 젊은이의 바람이 이루어질 뿐 아니라 자신의 펍을 만들어 운영할 수 있다면, 혹은 북한 해산 출신의 제시 대표와 부산 출신의 예지 대표가 합쳐 만든 푸드 스타

12) 위의 책. 73. “2014년에 외교부 산하기관 국립외교원이 발표한 <2040 통일한국 비전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최고의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바라본 통일한국의 GDP가 프랑스, 독일, 일본, 영국 등을 앞질러 세계 8위까지 부상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 다만 유념해야 할 부분은 한반도에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통일이 아니라 시장의 통합이라는 것이다”

13) 위의 책. 81.

14) 위의 책. 110.

15) 위의 책. 115.

트업으로 한반도를 잇고 또 융합된 한반도의 맛으로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은 MZ세대에게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김지수는 이념적 통일이 아니라 남과 북이 공존공생하며 서로가 도움 주고받는 변영의 통일을 말하고 있다. 김지수의 주장에 분명한 것은 '두 국가'이론으로서 지금 한반도에 필요한 것이 통일이 먼저가 아니라 평화공존의 시장통합이 우선이다.

이러한 주장은 분계선을 국경선으로 바꾼 '두 국가'를 전제로 한 것으로서 첫째 '두 국가'가 적대적 관계가 아닌 상호 협력적 관계이어야 가능하다. 현실은 남북이 서로 적대적 관계라는 것이 문제이다. 둘째로, 헌법 3조를 바꾸어야 하는 개헌 사항이다. 한국 사회가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마주한 근본 문제의 설정이 역사적이며 국제정치적인 것이어서 모든 문제를 경제문제로 변환시킬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 다시 말해, 첫째로 통일은 해방과 6·25 한국전쟁의 역사 속에서 일본과 미국 제국주의 그리고 국제 공산주의에 의해 강제로 분단되는 민족모순의 기표이다. 따라서 통일이 지시하는 뜻은 남한과 북한이 공동으로 다시 하나가 되는 민족적이며 역사적 과제를 담은 기의였다. 남한과 북한이 한 민족을 이루는 통일이 냉전체제의 대립을 완화함으로써 인류사적 회복과 치유에 기여하는 측면이 있다. 셋째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운동이 전개될 때면 반체제 운동, 즉 공산주의로 치환되어 노동계급에 대한 탄압과 억압이 일어났다. 분단이란 민족모순 때문에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모순의 해결을 위한 모든 사회적 행동은 반사회적인 것으로 낙인찍혔다. 통일이 더 이상 남한 사회의 중심문제가 아닐 때, 자본과 노동 사이의 계급모순을 순수하게 다룰 수 있게 될 것이다. 넷째로, 민족모순 내에 얽혀 있는 여성의 문제는 단순히 여성의 자유와 권리만을 문제가 아니라 불평등과 억압 구조의 해체라는 인류 보편의 문제이다.¹⁶⁾ 결과적으로 통일보다 공생공존을 향한

젊은이들의 의식이 경제적 풍요로 모두 환원될 때 과연 민족모순, 계급모순, 여성해방과 같은 사회 구조적 문제는 외면받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평화와 번영이 보장되는 ‘두 국가’가 지속가능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분단과 열전이란 국제관계로 인한 피해로 ‘한민족’이란 당위성은 중국이나 일본보다 대한민국이 한반도 상황에 우선권을 제공했다. 그것은 커다란 국제적 명분임은 분명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민족 공동체성 회복으로서 통일은 인류 보편 구원의 역사와 분리될 수 없다는 것과 ‘코리아 국가 연합(Korean Union)’을 현재 젊은 세대의 의식에서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2023 통일의식조사’는 통일을 해야 하는 근본적 이유가 전쟁의 역사적 상처로부터의 회복과 강제된 분단의 민족적 해결에 있지 않고 ‘각 개인이 잘 사는 것’으로 변화되었음을 드러낸다. 이미 북한은 ‘두 국가’로 영구적 분단을 구상한 듯하다. 2024년 1월 15일 최고인민회의에서 ‘민족’이나 ‘동족’이란 개념을 삭제하였고, 통일 관련 상징물을 모두 철거하는 등 남한과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다. 2023년 12월 30일 노동당 중앙위 8기 9차 회의에서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을 비판하며 ‘적대적이고 교전 중인 두 국가’로 규정한 것이다. 이것은 위기에 놓인 김정은 정권이 자신들의 북한 체제를 유지하는 데 ‘두 국가’로 존속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 내린 북한 내 엘리트들의 결정일 것이다. 이것은 MZ세대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호 협력적 ‘두 국가’가 이루어질 수 없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근원적 문제는 ‘두 국가’ 사이의 적대성이다. 정성적(定性的) 측면에서 혐오와 증오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분쟁과 폭력의 위협은 더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육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16) 이봉석 “박순경의 민족통일신학에 기초한 한반도 중립국 이론,”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325-327.

역시 '두 국가 모델이 남북 간의 적대성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지적한다.¹⁷⁾ '두 국가'로 존재하면 서로 평화로울 것이라는 MZ 세대의 낙관주의 전망이 우려스러운 이유이다. 젊은 세대가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은 '민족'이라는 공동체성을 붙들고 대화로 나아가는 것은 현실적 평화를 위해서이다.¹⁸⁾ 이를 위해 절대적 타자를 향한 관용과 포용, 배움과 용서의 담론들이 지속적으로 한국 사회 안에 활성화 하여 '코리아 국가연합'에 대해 더 세심한 논의가 진행 되어야 할 것이다.

III. 배움과 포용으로 점검해야 할 젊은 세대 의식과 한반도 '두 국가론'

1. MZ세대에게 불공정으로서 통일

성공에 따른 물질적 풍요를 향유하는 문화가 MZ세대의 특징이다. 대학교와 전공을 타이포그래피와 로고로 새긴 '과잠'은 대표적 예이다. 젊은 세대에게 '과잠'은 계급이고 자신의 성공을 드러내는 노력의 공로이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의 조사가 보여주듯이 MZ세대의 경험과 공감이란 일정 수준의 경제적 풍요를 전제로 한 생각과 판단 그리고 결정이다. 또

17) 정옥식, "한반도 두 국가론과 평화운동," 「기독교 사상」 784(2024), 24-25.

18) 김동완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서울: 통일교육원 2015), 71-72. 북한 주민들의 남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른바 '장마당 세대'가 남한 사회의 풍요와 자유로움을 비공식적으로 접하며 형성된 한류의 긍정적 결과라 할 수 있다. 한류가 남북한 주민들의 문화적 공감대가 될 수 있음을 확인한 김동완의 말이다. "그동안 북한 당국으로부터 사상학습 교양을 통해 주입받은 '혈빛고 굶주린 남한, 미 제국주의로부터 해방시켜야 할 남한'이 아닌 '경제적으로 풍요롭고 자유가 있는 남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며 상대적 빈곤감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이렇게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라는 반문과, '나는 왜 일한 만큼 얻을 수 없는가' 등에 대한 반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가와 정권에 귀속된 부속물로서의 인간이 아닌, 사적 욕망과 감정을 가진 하나의 주체로서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는 정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고 일상의 저항 문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

한 젊은 세대의 의식의 단위도 트라이브(tribe) 형태로 전파되고 있다.

“소사이어티의 근간이 계약이나 약속인 것과 달리 트라이브(tribe)에는 개인적 지향성에 기초한 ‘공감’이라는 정서적 유대감이 깔려 있다. 즉 초개인화 시대의 개인은 자신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개인적 지향성을 기반으로 공감이라는 정서적 연대를 맺는 트라이브를 형성한다. 또 이들은 하나의 트라이브에만 소속되지 않고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구성하는 요소만큼이나 다양한 수십 개의 트라이브에 걸쳐 있다.”¹⁹⁾

지향성으로 관계 맺는 MZ세대에게 통일은 하나의 불공정 요인이다. 통일 때문에 자신이 손해 볼 수 없다는 것이 이들 정의의 핵심이다. 어쩌면 존 롤스(John Rawls)의 무지의 베일에 정초한 공정을 정의로 본 것이다. 존 롤스의 정의론에 입각하면 자기만 잘하면 된다. 그러나 사회는 공동체이다. 각 개인은 공동체에 속할 수밖에 없는데 자기만 잘하는 상호 무관심한 합리적 태도로서 온전한 정의를 이룰 수 없다. MZ세대가 고려해야 할 것이 공동체적 입장에서 타자, 곧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공의로운 은혜’의 필요성이다.

줄리아 크로세테바(Julia Kristeva)는 자기 사랑에 빠진 단자화 된 주체에 대한 비판으로 나르시시즘의 이야기를 가져와 말한다.

“...나르시스가 한 것처럼, 하나의 반영에 지나지 않은 것을 단단한 현실로 간주하는 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그래서 나르시시즘이 규탄을 받는다. 그러나 그러한 규탄은 반영들이 겪는 과정의 기원에 대한 것은 아니다. 플로티노스를 읽어 보면, 잘못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성 위로 몸을 굽히는 것 대신에 단순히 그 영상들에게 현실성을 부여하는 순간에 시작된다”²⁰⁾

19) 대학내일20대연구소, 『Z세대 트렌드2024』 (서울:위즈덤하우스, 2023), 26.

‘무지의 베일’이란 전제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다. 베일로 가리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할 것이라는 MZ세대의 믿음은 나르시스가 물 위에 비친 허위의 자신을 실재하는 대상으로 믿는 것과 같다. 그것은 중대한 잘못이다. 달리 말해 능력주의를 수용하는 태도가 이들의 성공과 물질적 향유라는 환상 위에 쌓인 공정 의식이다. 능력주의는 연대보다는 개별화 내지 분파적일 때 사회에서 더 잘 수월하게 통용되는 생각이다. 당연히 국가는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고 개인은 열심히 노력하여 자부심을 갖고 그 대가를 향유하게 해야 한다. 능력에 따른 분배적 정의는 세대와 세대를 넘어 보편적 가치임은 분명하다.

공정한 시스템(예를 들어 공무원시험)과 개인의 노력이 모든 것보다 우선하게 되면 능력주의 사회가 된다. 문제는 능력주의 사회에서 연대와 화합보다 분열과 혐오가 더 급속도로 확산 되는 데 있다. 누군가를 배제해야 자신에게 기회가 더 많이 생기고, 경쟁에서 승자가 되어야 성공을 보장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능력주의 사회에서는 결과에 대한 승복과 협조보다 대결과 적대의 태도가 격렬하다. ‘과잡’으로 상징되는 학력주의도 혐오와 분열 그리고 대학의 서열화를 부추긴다는 점에서 능력주의의 연장선에 있다. 학력주의가 편견과 업신여김을 정상적인 태도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학벌의 연결고리에 묶인 이들이 편견과 업신여김의 태도를 정당화 한 것이다. 비록 대학 학위증이 인종주의나 성차별에 대해 반대하는 모습을 보일지 모르나 교육받지 못한 이들에 대한 하대와 업신여김 그리고 편견은 여전히 강하다. 연구자는 “능력주의”에서 중요한 공정성은 허상적 측면이 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사회 구성원들이 연대할 때 오히려 기회가 더 많아질 뿐만 아니라 더 건강한 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²¹⁾

20) Julia Kristeva, *Histoires d'amour*, 김인환 역, 『사랑의 역사』 (서울: 민음사), 146.

종합적으로 성공의 가치를 높이는 사회는 모두를 분열하게 한다. 사회학자 엄기호에 의하면 애초부터 노동시장에서 스펙을 요구하는 것은 자기 계발의 능력을 인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잉여 인간의 시대에 탈락시킬 사람을 찾기 위해서이다. 더욱 놀라운 일은 한국 사회의 대학생들이 청년실업의 문제를 시장의 무능에서 찾기보다 자신의 실패 때문으로 본다는 점이다. 자신의 무능과 무기력, 짓대 없음과 나태함, 그리고 방탕함과 같은 도덕의 문제로 고민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22) 이처럼 개인의 문제에 충실한 많은 젊은 대학생들은 사회구조적 문제를 지극히 개인적으로 접근한다.

자기중심적 개인주의는 교회 청년 사역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 한국의 교회 청년들도 스펙 쌓기에 열정적이어서 자신의 기독교가 말하는 공동체성에 자긍심을 갖지 못한다. 경쟁과 밀어내기 시스템 속에서 교인이라 하여 특혜가 있는 것이 아니니 자기 밖의 문제에 연루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김은혜는 한국교회에서 청년들이 떠나는 위기를 교회의 안팎에 차이가 없음에서 설명한다. 예를 들어 한국 사회 부모들은 자녀들의 양육에 있어 재정적 물질적 지원 방식을 취하였다. 교회의 청년 사역 책임자는 물질적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작 청년들은 이러한 재정적이며 물질적인 지원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이것은 세대 간의 공감과 소통의 부재 결과이다.

21) 이봉석,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현상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윤리적 제안,” 『기독교사회윤리』 53(2023), 87-88/ 79-110. “결과적으로 능력주의에 따른 차별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며, 배제와 특권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불공정하고 부정의하다. 박일원은 능력주의를 따른 정의를 임마누엘 윌러스틴의 말을 빌려 ‘자본주의 사회의 작동 장치’ 혹은 ‘끝없는 축적의 불합리성을 감추는 가면’이라고 표현했다. 경제학자 주병기는 부모의 사회적 경제적 배경에 따른 기회 불평등에 대한 인식을 조사했다. 조사에 의하면 지난 20년간 기회 불평등은 급속히 악화해 왔다. 계층 간 교육 격차가 크다는 인식 역시 최근 매우 높게 나타났다.”

22) 엄기호, 『이것은 왜 청년이 아니란 말인가』 (과주: 푸른숲, 2014), 60-61.

한마디로 대화 없음이 문제인 것이다.²³⁾

김은혜가 지적하듯이 화해를 이루어야 할 교회의 신학은 교회 밖의 생활세계에 대한 유의미성을 교회와 제대로 연결하지 못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박우영은 '한국 내 기성세대가 대표하는 위치와 그들의 윤리적 가치는 근대 산업 발전의 역사를 경험으로부터 형성되었고, 더 이전에는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국가 발전의 이념에 복종할 것을 강요받았다.'고 말한다. 기성세대가 인간다운 삶의 다양성과 개체성에 대한 존중보다 집단적이고 전체주의적인 가치를 용인하는 태도에 대한 지적이다.²⁴⁾ 박우영에 의하면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와 전혀 다른 삶을 산다. 이들은 다양성과 개체성, 개인적 가치에 관해서 배웠고 향유하고 있다.²⁵⁾ 결과적으로 교회 안팎의 젊은 세대의 생각과 판단은 개인주의라는 시대정신 아래 공유하고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 사회의 젊은 세대가 의식하는 정의롭다는 것은 개인의 능력주의와 성공주의에 연관된다. 자신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 타자의 존재에 대한 인식과 타자의 아픔을 공감(empathy)할 여유가 없다. 생존 투쟁의 조건 아래 '두 국가론'이 이들에게 적합한 통일관일 것이다. 그러나 젊은 세대는 한반도의 국제관계의 지정학적 위상에서 '민족이 하나가 되어야 개인의 평안과 인성이 보장되는 특수성의 문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마치 동네 전체가 불타면 자기 집도 위험한 것과 같다. 북쪽의 또 하나의 '민족'을 전적인 타자로 대하기에 여전히 이웃으로서 '내 몸과 같이' 사랑과 증오 할 사회적 감정이 남한의 민중들에 남아 있음을 알아야 한다.

23)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2014), 19.

24) 박우영, "다음 세대 청소년을 새롭게 이해하기," 「기독교사회윤리」24(2012), 160.

25) 위의 글, 162.

2. 배품과 포용으로 점검하는 한반도 ‘두 국가론’

능력주의와 성공주의 가치체계에서 보면, 배품과 포용이 효율성 면에서 현실적이지 못하다. 결국 현재 북한이 선도적으로 ‘두 국가’를 공식화하며 통일에 대한 전략을 수정했다. 통일이라는 말을 삭제하고 남한을 ‘적대적 국가’로 지정하며 한반도 두 국가로 존속하는 것이 북한 체제 유지에 유리하다는 판단일 것이다. 과연 그러한가? 북한은 핵무기 개발로 인해 정상적인 교역이 불가능한 비정상 국가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통일 논의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는 것은 너무 이른 결정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남한 당국과 비정부기구로서 교회들은 북한과 지속적인 대화를 시도하여 북한 당국과 인민들의 변화를 유도해야 할 것이다. 지속적, 포용적 대화가 배제와 증오의 관계를 배품과 포용 그리고 용서의 관계로 나아가게 할 것이다.

배품과 포용에 대해 크로아티아 출신의 신학자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배제와 포용』을 저술하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고 말한다. 그 이유는 ‘약한 이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과 십자가에 달리신 이를 저버리시는 하나님 사이에서 그리고 희생자들을 위해 정의를 성취하라는 명령과 가해자를 끌어안으라는 부르심 사이에서 볼프 자신의 신앙이 분열되고 모순에 처했기 때문이다. 결국 『배제와 포용』은 내전의 피해를 본 볼프 자신의 민족적 정체성의 핵심을 건드리는 문제를 스스로 다루는 영적인 여정에 관한 기록이 되었다. 볼프 자신이 크로아티아인으로 당한 피해를 복수해야 한다는 정의와 십자가의 메시지를 실천해야 하는 용서의 사랑 사이에서 지적 투쟁을 하고 있다.

통일에 대한 본 연구와 관련하여 볼프는 자신의 정체성 문제가 단순히 자기 본연의 모습을 찾는 것에 있지 않고 타자성과 분리될 수 없음을 포착한다. 볼프는 거부할 수 없는 크로아티아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가지고 구유고슬라비아(지금의 크로아티아는 유고로부터 독립했다)와 르완다 같은 곳에서 벌어진 잔인한 '인종 청소'에 대해 그것은 배제 체제에 뿌리를 둔 악이라고 분명히 말한다. 동시에 불프는 '경계를 모두 없애는 것의 혼동'과 '경계의 존재가 주는 억압' 사이에서 불가능한 선택을 해야 하는 현실성 또한 고려해야 함을 말한다.

“모든 경계를 비난하고, 모든 정체성을 억압적이라고 말하고, 모든 안정된 차이에 '배제'라는 꼬리표를 달아 보라. 그러면 명료하게 보는 행위 주체 대신 목적 없이 표류하는 사람들을, 도덕적인 의무와 책임감 대신 두서없는 행위를, 그리고 결국에는 자유의 춤 대신 죽음의 무감각 상태를 얻게 될 것이다.”²⁶⁾

현재의 분쟁들 가운데 상당수가 정체성에 대한 강력한 요구들이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 불프는 곳곳에서 자행되는 다양한 문화적 '인종 청소'는 정체성과 타자성의 문제로서 신학적 성찰의 핵심 주제라고 말한다. 이제 불프는 다시 묻는다. 우리는 어떤 종류의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가? 타자와 조화롭게 살기 위해 우리는 어떤 종류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가? 이 문제들에 대해 불프의 대답이 가치 지향적 개인주의 영향 아래 있는 젊은 세대에게 유의미할 것이다.

배제와 포용의 신학적 근거로서 불프는 바울이 평등을 위해 혈통을 폐기 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갈라디아서 3:1-4:11에 제시된 것처럼 바울은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토라를 상대화한다. 다시 말해 토라로서 하나 된 인류의 가족을 만들어 낼 수 없다. 토라가 한 분 하나님의 뜻을 영원하고 최종적인 형태로 담보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자연스럽게 바울은 인

26)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8), 97.

류 보편적 평등을 위해 민족적 특성을 규정하는 혈통을 폐기한다. 토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다. 여기에 인종, 종이나 자유인,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²⁷⁾

바울의 믿음을 따른 새로운 '민족' 개념은 독창적이지만 비판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초월적 하나님에서 민족의 보편성을 찾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바울이 평등과 보편성을 확보하기 위해 차이와 특수성을 포기했을 때 일어난다. 육에 속한 민족 개념을 해체하면 평등은 공허해지고, 보편성은 추상으로 빠지는 위험이 생긴다.²⁸⁾ 불프는 끊임없이 떠남이 주는 위험에 경계하고 소속됨의 필요성을 고수한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민족 됨'과 민족을 떠나 거리를 두는 '그리스도인 됨' 사이의 갈등과 긴장 사이에서 거리두기와 소속 두기 모두 필수적임을 강조한다. '거리두기 없는 소속은 파괴적이고, 소속 없는 거리두기는 고립적이다'라고 규정한다. 한 몸에 붙어 있는 지체로서의 몸 개념이 중요한 이유이다. 특별히 거리두기가 주는 긍정적 효과는 우리 안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낸다. '성령에 의한 거듭남의 결과로 나 자신의 문화로부터 거리를 둘 때, 그 거리는 내 안에 타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틈을 만들어 낸다'²⁹⁾

불프가 타자와의 관계에 집중하는 이유는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난 전쟁(1991-1995) 때문이다. 유고 내전에서 '인종 청소'라는 말은 인종적 타자성이 인종을 집단에서 씻어 버려야 할 더러움이며, 오염원이라 퍼뜨렸다. 그래서 유고내전에서 타자는 강제 수용소에 격리하고 살해한 다음, 집단적으로 매장하거나 추방한다. 그들의 문화적 종교적 정체성을 상징하는 기념물을 파괴해 버리고, 그들의 집단적 기억을 담고 있는 비문은

27) 위의 책, 67.

28) 위의 책, 74.

29) 위의 책, 77.

지워 버린다. 당연히 추방당한 사람들이 돌아올 방법은 없다. 이제 타자를 추방한 이후 모든 점령군이 그랬듯이 사람들이 땅을 독점적으로 소유한다. 타자를 쫓아낸 이들이 말하는 순수한 '혈통'과 순수한 '문화'에 속한 이들만 사는 것이 허락되었다. '위험한 순수'는 타자 없는 세상의 대가로 학살을 용인하였고, 군사 지도자들과 전쟁으로 폭리를 취하는 업자들을 부자로 만들었을 뿐이다.³⁰⁾

타자를 혐오의 대상으로 삼으면서 자행된 배제의 결과가 참혹할 뿐이다. 근대 자유민주주의 사회가 '배제하기보다는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쪽으로 발전을 거듭해 왔던 것도 참혹한 결과를 알기 때문이다. 성차별, 종교적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권리, 직업 정치적 의사 결정의 권리 등이 모두에게 주어진 평등한 권리는 근대 자유민주주의가 이끈 포용의 긍정적 혹은 진보적 결과이다.³¹⁾ 이런 의미에서 '인종청소'란 말은 배제와 혐오에 근거를 둔 논리이다. 볼프에 의하면, '배제는 선한 사람들에 의해 저질러진 악이자 문명에 의해 만들어진 야만성인 경우가 많다.'³²⁾

각 개인은 어떻게 배제에 맞서 싸울 수 있을까? 볼프는 타자를 기꺼이 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배제하지 않는 판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특별히 창세기 1장의 '분리하기'와 '결합하기'를 중요히 다루면서, 분리와 결합은 창조적 행위로서 '정체성'의 연결, 차이, 이질성을 포함한다. 볼프가 보기에 인간의 자아는 단순히 타자를 거부함으로써가 아니라 '들어오게' 하고 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사람은 분리된 동시에 연결되며, 구별되는 동시에 관계를 맺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나'라는 정체성은 타인에 대해 장벽인 동시에 연결되는 다리이다.

반대로 배제란 하나님께서 결합하신 것을 나누고, 나누신 것을 결합하는

30) 위의 책, 85.

31) 위의 책, 88.

32) 위의 책, 91.

것이다. 결국 배제는 상호 의존적 형식을 벗어나 그나마 연결된 것도 잘라내 극단적 독립의 상태를 유지하려는 태도이다. 상호 의존적 형식에서 벗어나면 타자는 무시해도 되고, 내버릴 수 있는 잉여적 존재가 된다. 그래서 배제는 타자와 같은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나와 그의 다름을 말한다.

볼프는 바울에게서 배제하지 않을 수 있음 배운다.³³⁾ 바울이 율법으로 형성된 잘못된 자신의 자아에서 벗어나야 했고,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다시 살아남으로써 자신의 중심을 재설정했다. 한마디로 자아의 중심에 자기를 내주는 사랑이 있다.

“그것은 자아를 폐쇄하고 자신의 정체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 순수성을 위협하는 모든 것을 몰아내는 ‘패권적 중심성’이 아니다. 반대로 새로운 중심은 자아를 개방하고, 자아로 하여금 타자를 위해 기꺼이 내어 주고 자신 안에 타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해준다.”³⁴⁾

인간의 정의로서 배제로부터 자기를 내주는 은혜와 사랑으로 자기중심성을 바꾼 것이다. 이제 볼프는 청결한 마음의 정치를 말한다. 자신이 세르비아 태생으로서 구유고슬라비아에서 일어났던 전쟁의 경험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기독교인으로서 말하는 것이다.

“보스니아에서 얼마나 많은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미워하고 복수하라고 가

33) 개혁신경, 갈라디아서 2: 19-20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34) 볼프, 107-108.

르치겠다고 맹세했던가! 얼마나 많은 무슬림, 세르비아인, 크로아티아인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그런 교훈을 배우며 자라겠는가!... 화해를 이루기 위해서는 삶에 새겨진 증오를 주의 깊게 지워내고 폭력의 울을 부드럽게 제거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통치의 중요한 교훈이다”³⁵⁾

볼프의 고뇌에 찬 지적인 여정을 통해 얻은 것은 배제보다는 포용이 남북 관계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국가론’은 ‘배제’의 공식화이다. 그것은 죄를 피하고자 죄 있는 사람을 찾아내 그들과 교제를 나누려 하지 않는 ‘위험한 순수’이다. 남한이 되었든 북한이 되었든 우리 안에서 타자를 쫓아내고 밀어내고 싶어 한다. 서로 연루되기도 꺼린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 역시 배제의 한 행위이다. 서로 교통하는 포용과 대화의 정신이 남과 북의 상황에 절실히 필요하다.

구약성서 학자 월터 브르그만(Walter Brueggemann)은 『하나님, 이웃, 제국』에서 삶이란 상호 관계성에 둘러싼 주제들을 밝힘으로써 사회적 관계들이 상품으로 환원되는 것에 비판적 분석을 내놓았다. 월터 브르그만은 제국을 건설하려는 현실 질서를 대신하여 은혜와 회복 그리고 용서라는 새로운 신법을 말한다. 월터 브르그만에 따르면 ‘율법은 대화이다.’ 정죄하고 처벌하고 징계하는 것이 법이 아니라 생동하고 변성하는 사회를 만드는 데 너무도 절실히 필요한 하나님과의 대화, 이웃과의 대화이다. 대화를 위해 율법이 있고, 대화로 수렴되는 은혜와 회복 그리고 용서가 오히려 좋은 삶이라는 것을 확인 시켜 주는 것이 율법이다.

월터 브르그만은 예언서의 사례를 들어 구체제를 대신할 혁명적 법 이해의 전환을 제시한다. 첫째로, 신명기 법전의 ‘만일 ~이면 그리하면 ~ 하리라’라는 하나님의 징계의 법률적 문장을 ‘징계’에서 ‘회복을 위한 순종’

35) 위의 책, 175.

으로 해석하였다. 한마디로 회복하려면 순종해야 한다. 순종하지 않아 제국에 나라를 잃어버리는 징계로 이해했던 ‘공통신학’의 해석의 방향을 바꾼 것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텍스트 해석은 포로기의 열고 닫음에 대한 결정권이 하나님에게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다는 새로운 은혜의 메시지이다.³⁶⁾ 둘째로, 월터 브루그만은 예레미야의 시적 언어에 주목한다. ‘나를 배반하였던 이스라엘아, 돌아오너라... 너희를 시온으로 데려오고... 배반한 자식들아, 돌아오너라. 너희의 마음을 바로잡아 나를 배반하지 않게 하여주리라’(렘3:12, 14, 22) 예레미야의 시적 언어의 핵심은 징계가 아니라 은혜와 회복이다. 당연히 신명기 계승자로서 예레미야는 토라 전통에 충실한 선지자이다. 따라서 배반한 이스라엘 민중들이 포로 되는 것은 징계이고 정의라고 말해야 한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새로운 시대임을 직감했고,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야훼께서 자신의 토라도 위반하신다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해야 했던 것이다. 하나님 자신이 은혜의 시대로 가기 위해 율법적 정의의 경계선을 넘어 은혜로 다가오신다.³⁷⁾ 셋째로 에스겔은 균형적 사고방식을 중시한 제사장 출신임에도 낮은 백성을 살리기 위해 신명기의 무거운 제재에서 벗어난 낮은 하나님을 말하였다.³⁸⁾ 에스겔을 통해 죄인을 향한 긍휼과 자비의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넷째로 이사야는 끌려온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것을 요청한다. 이사야의 메시지는 야훼의 정의가 보응의 법칙과 무관하고, 오히려 언약에 뿌리내린 정의는 하나님의 넘치는 관대함이었음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정의’는 완고한 제재 조치를 넘어서 회복하는 정의이다. 따라서 은혜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 구시대적 이념을 포기해

36) Walter Brueggemann, *God Neighbor Empire*, 윤상필 역, 『하나님, 이웃, 제국』(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20), 174.

37) 위의 책, 176.

38) 위의 책, 178.

야 한다. 교환적 정의(commutative justice)에서 회복적 정의로 의식의 전환을 가져야 한다.³⁹⁾

볼프와 브르그만의 연구를 종합하여 볼 때, ‘두 국가론’은 냉전체제를 다시 현실 질서로 삼는 제국의 질서임을 알 수 있다. 이른바 신-냉전체제의 질서 속에서 혐오와 열등한 타자로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대화하는 것이 정의라 여기기도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아훼께서 이스라엘의 ‘돌이킴’을 받아 주셨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에 직접 나섰던 것과 같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임으로써 모두가 의인이 될 수 있는 것과 같이 복음은 원수 된 ‘두 국가’를 서로 용서하고 회복하는 데서부터이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나’를 돌아보고 ‘이웃’을 받아들인다면 하나님의 은혜로서 통일이라는 커다란 역사가 한민족 모두에게 일어날 것이다.

IV. 나가는 말

‘가치 지향적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MZ세대에게 통일이란 주제는 자신의 일상과 너무나 먼 거대 담론이다. 그래서 MZ세대는 통일을 민족적 당위로 여기기보다 불공정의 근원적 요인으로 받아들였고, 통일이 아닌 현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는 ‘두 국가론’을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위상에 있다. 그러나 MZ세대의 통일 의식 속에 고려되고, 반영되어야 할 사회적 존재들이 있다. 세대는 다르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한국전쟁의 경험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존재들이다. 이들은 적대성을 넘어서기 위해 남북 모두에게 대화를 요청한다.

그들 가운데 서광선 교수는 1953년의 일을 회고하며 북조선 공산당 정

39) 위의 책, 181.

권에 의해 순교당한 아버지의 시신을 수습했고, 반공 피난민 해군으로서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이었다고 말한다.⁴⁰⁾ 비극적 가족사 때문일 것이다. 그럼에도 서광선의 신학은 정의보다 은혜와 사랑을 앞세운다. 서광선은 2015년 조현 종교전문 기사의 칼럼을 소개하며 북에서 잔혹한 학살과 재산 탈취를 당하고 월남해 남한 우익의 핵이 된 기독교인들의 공산주의 혐오증과 반공은 어쩌면 당연한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이제 한국 기독교는 유아 청소년기를 지나 장년이 될 시점이 되었으니 원한을 십자가에 못 박고, 희망을 부활시킬 때가 되었다고 말한다.⁴¹⁾ 과거의 아픈 상처를 이해하는 바이지만 용서와 화합의 새로운 역사 지평으로 나갈 것을 제안한다. 서광선은 용서와 화합 그리고 대화로 평화롭고 통일된 한반도를 만들 것을 일관되게 주장한다.

서광선의 주장과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1장에서 MZ세대가 가진 ‘가치 지향적 개인주의’의 통일의식이 한반도의 ‘두 국가론’을 암묵적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장과 3장에서 주디스 버틀러나 볼프의 연구를 통해 실제적 전쟁과 회복할 수 없는 애통함의 경험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닌 이들과 ‘타자를 위한 장소’를 확립하기를 좋은 윤리로 보았다. 기독교 윤리가 해야 할 일이 적대적 타자를 향한 진정한 공존을 위한 ‘말 걸기’임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MZ세대가 암묵적으로 수용하는 한반도의 ‘두 국가론’은 일견 서로 무관한 존재가 됨으로써 두 국가 사이에 평화 공존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으나 실상 두 국가 사이에 혐오와 우월의식의 확장으로 그리고 분쟁과 학살이 ‘인종 청소’ 수준으로 자행되었다는 역사적 교훈을 얻었다. MZ세대도 열전(熱戰)이 일어났던 곳의 신학자가 전하는 직관에 귀 기울

40) 서광선,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서울: 한울, 2018), 86.

41) 위의 책, 95-96.

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은 북한과 만남을 확대하고 상설화하는 '말 걸기'를 행함으로써 MZ세대에게 인식의 전환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동완. 『북한에서의 한류 현상: 그 의미와 영향』. 서울: 통일교육원, 2015.
- 김은혜. “한국교회 청년문제를 통해 본 한국교회의 위기와 기독교윤리적 대안.” 『기독교사회윤리』 30(2014), 7-36.
- 김지수. 『나는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 파주: 교보문고, 2021.
- 대학내일20대연구소. 『Z세대 트렌드2024』. 서울: 위즈덤하우스, 2023.
- 박우영. “다음 세대 청소년을 새롭게 이해하기.” 『기독교사회윤리』 24(2012), 151-183.
- 박재홍.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 인구학』 24(2001), 47-78.
- 배기찬. “코리아 두 국가론과 통일문제.” 『기독교사상』 784(2024), 9-18.
- 서광선. 『거기 너 있었는가, 그 때에』. 서울: 한울, 2018.
- 송길영. 『시대에보: 핵개인의 시대』. 파주: 교보문고, 2023.
- 오기성. “MZ세대 통일의식 제고 방안 연구.” 『평화학연구』 23(2022), 79-101.
- 조형근. 『키워드로 읽은 불평등 사회』. 파주: 소동, 2023.
- 엄기호. 『이것은 왜 청춘이 아니란 말인가』. 파주: 푸른숲, 2014.
- 이봉석. “박순경의 민족통일신학에 기초한 한반도중립국 이론.” 『기독교사회윤리』 51(2021), 313-345.
- _____. “한국 사회의 능력주의 현상에 대한 이해와 기독교윤리적 제안.” 『기독교사회윤리』 53(2023), 79-110.
- 임승엽 외. “2018년평창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논란에 대한 사회적 담론.” 『한국스포츠사회학회지』 31(2018), 65-81.
- 정육식. “한반도 두 국가론과 평화운동.” 『기독교 사상』 784(2024), 19-28.
- Judith Butler. *PARTING WAYS: Jewishness and the Critique of Zionism*. 양효실 역. 『지상에서 함께 산다는 것』. 서울: 시대의창, 2016.
- Julia Kristeva. *Histoires d'amour*. 김민환 역. 『사랑의 역사』. 서울: 민음사.
- Miroslav Volf. *Exclusion and Embrace*. 박세혁 역. 『배제와 포용』.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8.

Walter Brueggemann, *God Neighbor Empire*. 윤상필 역. 『하나님, 이웃, 제국』.
서울: 한국성서유니온선교회, 2020.

<https://www.snu.ac.kr/snunow/press?md=v&bbsidx=143110> 접속일 2023.12.14.
12시.

논문투고일: 2024년 07월 15일

심사개시일: 2024년 07월 16일

게재확정일: 2024년 08월 12일

• 국 문 초 록 •

본 논문은 일차적으로 MZ세대의 통일의식 속에 반영된 핵-개인화 현상에 주목하며, 당위로 받아들여졌던 통일 담론보다 불안정하고 위기라 할 수 있는 '프레카리아트'의 삶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젊은 세대의 의식을 비판적 입장에서 분석한다. 다음으로 최근 확산 일로에 있는 한반도 '두 국가론'에 대해 암묵적으로 지지하는 MZ세대의 통일관에 대해 비판한다.

젊은 세대가 타자를 향해 무심한 자기중심적 태도를 보이고, 국가와 민족이란 이념적 공동체에 대해 불신하는 것이 능력주의 사회에서 이해되는 측면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젊은 세대가 능력주의 기반에서 낙관적으로 기대하는 한반도 '두 국가론'이 실상 두 국가 사이에 혐오와 우월의식의 확장으로 인해 분쟁과 삶의 자리를 파괴할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것을 밝히고자 한다.

주제어: 코리아 국가연합, MZ세대, 평화공존, 통일의식, 통일담론
